

# 원희룡 장관 “청년주거정책 체감도 제고 위해 청년센터와 동행”

## - 10일 첫 ‘원테이크 (One Take) 청년주거상담소’ 열고 소통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0일(금) 오후 4시 청년재단과 함께 전국 청년센터 관계자들에게 주요 주거지원정책을 설명하고, 주거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온라인 형식의 간담회\* ‘원희룡 장관의 원테이크(One Take) 청년주거상담소’를 개최하였다.

\* 전국 청년센터 관계자 등 총 130명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동시 접속 및 실시간 소통

○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최초로 전국 청년센터\*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서 주거지원정책이 청년들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청년들 가까이에서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청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\* 「청년기본법」 제4조 등에 따라 정책 등을 청년에게 전달하는 기관(전국 총211개)

○ 특히, 새 학기 개강과 봄 이사철을 맞아 주로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전월세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많은 주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맞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간 강화된 주거지원 정책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상담하는 청년주거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.

○ 참석자는 전국 청년센터 관계자들과 청년주거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, 55개의 청년센터에서 참여한 106명을 포함하여 총 130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였다.

□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의 주거희망복원을 위한 지원정책 설명, 청년센터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청년 주거문제 관련 질의 응답이 진행되었으며, 모든 순서를 원 장관이 직접 진행하였다.

- 먼저, 원 장관이 최근 청년들이 관심이 많은 ① 전세사기 예방, ② 관리비 투명화, ③ 청년주택 공급확대, ④ 대출·주거비용 완화 관련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.
- 이어서 청년센터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청년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면서 느꼈던 점을 원 장관에게 전달하였다.
- 이날 참석자들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비 절약 정책이 필요하며,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등 일반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고, 원 장관은 “오늘 공유된 다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주거정책에 반영 하겠다”고 밝혔다.
- 이날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“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정책을 알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홍보 및 현장과의 소통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계획”이라면서,
  - “청년은 윤석열 정부의 동반자로서, 청년의 희망을 다시 찾아드리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정책 전반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, 이를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” 이라고 말했다.
  - 또한, “더 많은 청년들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중간 전달자인 청년센터와 계속 동행”하겠다고 덧붙였다.

2023. 3. 10.

국토교통부 대변인